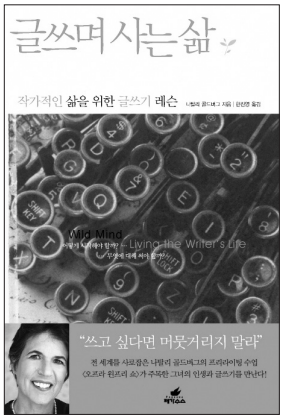
멈추지 말고 쓰라

– 나탈리 골드버그, 『글 쓰며 사는 삶』, 한진영 옮김, 페가수스, 2010.

안 순 태
서울대 기초교육원
글쓰기 강의교수



"5초 동안 아무것도 타이핑하지 않으면 그동안 당신이 썼던 글은 모두 사라집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 그게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컴퓨터에서는 싹 사라지죠."

무슨 소리인가 싶겠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유명한 글쓰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이다. 정말 5초 동안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그동안 썼던 모든 것을 가차 없이 지워버린다. 어렵사리 A4 한 페이지 분량으로 글을 썼는데, 그저 5초 동안 손을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머릿속으로 당신이 무슨 위대한 생각을 하든 그건 컴퓨터가 알 바 아니다) 이미 쓴 글 전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다. 얼핏 보면 무모하기도 하고 잔인하게 느껴지기까지 하지만 이 애플리케이션이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미 많은 작가들이 글을 쓸 때 '쉬지 않고' 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미국 작가 나탈리 골드버그(Natalie Goldberg)가 그 중심에 있는 이다. 소설을 쓰기도 하지만, 그녀가 주력하는 분야는 '글쓰기'다. 전세계적으로 이른바 '글쓰기 붐'을 일으킨 작가다. 작가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소설가나 극작가를 떠올리는데, 그녀는 주로 글쓰기에 대해 쓰는 작가다. 그녀는 또 30년 이상 경력을 지닌 선(禪) 수행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녀의 글쓰기 관련 책들에서 수시로 '선(禪)'에 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고, '선(禪)'의 수행법이나 선사의 가르침을 글쓰기와 연결 짓는 것도 볼 수 있다.

사실 그녀의 이름을 세계의 독자들에게 각인시킨 것은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Writing Down the Bones, 1986)라는 책이다. 이 책은 미국에서만 10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다. 이후 『글 쓰며 사는 삶』 (Wild Mind: Living the Writer's Life, 1990), 『버리는 글쓰기』(Thunder And Lightning, 2001), 『인생을 쓰는 법』 (Old Friend from Far Away, 2007), 『구원으로서의 글쓰기』(The True Secret of Writing, 2014) 등 글쓰기 관련 책들을 여러 권 내고 있다. 그런데 책을 낸 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글 쓰며 사는 삶』 출간 이후 『버리는 글쓰기』가 나오기까지 10년 이상의 공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니다) 『글 쓰며 사는 삶』 이후 그녀는 약 10년간 극심한 슬럼프를 겪게 된다. 글쓰기 관련 서적으로 대흥행을 한 작가가 슬럼프에 빠져 10년 이상 글을 못 쓴 사실은, 그녀 개인에게는 불운한 일이지만 우리에게도 묘한 위안을 준다. 글쓰기 작가도 글을 전혀 못 쓸 때가 있다고.

나탈리의 글쓰기 책들 가운데 내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글 쓰며 사는 삶』이다. 주요 메시지는 그녀의 다른 책들과 큰 차이가 없지만 초반기의 열정과 두 번째 책으로서의 정리된 생각, 이런 게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나탈리의 다른 글쓰기 책들이 그렇듯 이 책도 어떤 체계 같은 것은 없

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으며', '조용한 공간을 찾아서', '쓰고 싶다면 머뭇거리지 말라' 등처럼 그저 어떤 글의 주된 메시지를 제목으로 정하고 그것을 특별한 규칙 없이 병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이 책은 처음부터 읽을 필요도, 다 읽을 필요도 없다.

그녀의 책들은 비슷한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다섯 권의 글쓰기 책을 관통하는 건 '일단 글을 쓰라, 쉬지 말고 쓰라'는 메시지다. 이 책도 그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손을 움직여 글을 쓰지 않으면 한낱 몽상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는다.

"손을 계속 움직이라고 하셨는데, 손을 멈춰야 할 때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스스로 무얼 말하고 싶은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잠시 멈춰도 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말하고 싶은 걸 알아내는 동안에도 손을 움직이는 게 좋다. 나는 오랫동안 글쓰기 훈련을 해오면서 이 원칙을 엄격하게 지켜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손을 계속 움직였다. 첫 번째 생각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포착하려 했다. 잠시 멈춘다고 해서 별 문제는 없겠지만 그런 뒤에 곧바로 다시 쓰는 건 늘 쉽지 않았다. 원한다면 쓰기를 멈추고 자신이 쓰고 싶은 것을 더 구체적으로 떠올려도 좋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몽상에 빠져서 글쓰기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다.(19~20면)

쉬지 말고 쓰라고 했다고 해서 온종일 글만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만은 쉬지 말고 계속 손을 움직여 오직 글쓰기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 소설이나 에세이야 작가가 미리 구상을 하지 않아도, 막상 쓰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이야기를 만들어 글이 되지만, 리포트나 논문은 다르지 않을까? 물론 다르다. 우리가 리포트나 논문을 쓸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아무 생각 없어 무조건 손을 움직여 쓰라'는 말이 아니다. 일단 쓸거리를 준비해두고 생각도 정리하고 개요도 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너무 많은 준비를 하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한다. 게다가 우리의 일상은 어떤가. 집중력을 흩어버리는 요소들이 무수히 존재한다. 글을 구상하거나 자료를 찾다가 어느새 엉뚱한 웹사이트 서핑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는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결코 아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완성하는 리포트는, 논문은 결국 손을 움직여 쓸 수밖에 없는 것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에는 오직 손을 움직여 글로 만드는 작업에 전념해야만 한다.

우리는 머릿속에 쓸 내용을 명료하게 정리한 후 글로 옮겨야 좋은 글이 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머릿속에 아무리 훌륭한 생각이 있다 해도 그게 문자로 정착되지 못하면 그냥 '훌륭한 생각'에 머무는 것이지 결코 '훌륭한 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기도 한다. 훌륭한 생각이 꼭 훌륭한 글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 머릿속에 글이 다 구상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글로 그대로 옮겨지지는 않는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일단 손을 움직여 글을 쓰고 그것을 열심히 수정하는 일이다. 그 과정을 온전히 겪었을 때만 글이 완성된다. 그 점에서 이 책 곳곳에 숨어 있는 다음과 같은 격려는, 글쓰기 작가 나탈리의 기나긴 슬럼프와 함께 글을 쓰는 우리에게 위안과 용기를 준다.

글쓰기의 유일한 실패는 글쓰기 자체를 그만두는 일이다. (170면)